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Press release
Embargo 24 April 2017, 00:01 AM CET**

Contact: Stephanie Blenckner
Communications Director
Tel: +46 8 655 97 47
Mobile: +46 70 86 55 360
Email: blenckner@sipri.org

전 세계 군사비 지출: 미국과 유럽은 증가, 원유수출국은 감소

(2017년 4월 24일, 스톡홀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2016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1조 6,86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15년 대비 0.4퍼센트의 실질 증가율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북미 군사비 지출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서부 유럽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SIPRI 군사비 데이터는 현재시간 이후로 www.sipri.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6년 전세계 군사비는 1조 6,860억 달러로 2년 연속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1년 1조 6,99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처음으로 보인 증가 현상이다.* 군사비 지출 양상은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중·동유럽,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중동(데이터가 있는 국가 기준), 남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액은 하락했다.

미국 군사비 지출은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사우디 아라비아 군사비 지출은 크게 하락

2016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6,110억 달러로 세계 최대 군사비 지출국 지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이은 중국의 군사비 지출액은 5.4% 증가한 2,15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예년 증가율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이다. 러시아는 2016년 5.9% 증가한 692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함으로써 최대 군사비 지출국 3위를 차지했다. 2015년 최대 군사비 지출국 3위였던 사우디 아라비아는 지속적인 역내 전쟁 개입에도 불구하고 30% 하락한 637억 달러의 군사비 지출로 2016년 4위로 하락했다. 인도는 2016년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9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함으로써 5위를 차지했다.

2016년 미국의 군사비 증가는 경제위기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미군 철수로 인한 군사비 하락세의 종점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다. 2016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정점을 기록한 2010년 대비 2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IPRI 군비 지출 프로그램 책임자 오드 플뢰랑(Aude Fleurant) 박사는 '미국 전체 예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지출 증가에 관한 합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졌다'며, '미국 내 정세 변화로 향후 군사비 지출 양상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유럽 군사비 증가는 높아지는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s) 과 연관

서유럽 군사비 지출은 2년 연속 증가하여 2016년 2.6%에 달했다. 3개국을 제외한 모든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이탈리아는 전년 대비 11%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대비 상대적으로 큰 군사비 지출 증가세를 보인 국가들은 중부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6년 중부 유럽의 전체 군사비 지출은 2.4% 증가했다. SIPRI 군비 지출 프로그램의 시몬 베즈만(Siemon Wezeman) 선임연구원은 '중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군사비 지출을 늘리는 현상은 러시아가 큰 위협으로 인식된 점에 일부분 기인한다'며, '이는 2016년 러시아 군사비 지출이 NATO 유럽 회원국 전체 군사비의 27% 밖에 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Press release
Embargo 24 April 2017, 00:01 AM CET**

Contact: Stephanie Blenckner
Communications Director
Tel: +46 8 655 97 47
Mobile: +46 70 86 55 360
Email: blenckner@sipri.org

대다수 원유수출국 군사비 대폭 하락

SIPRI 군비 지출 프로그램의 연구원 낸 티엔(Nan Tian) 박사는 ‘유가충격(Oil-price shock)으로 인한 원유수익 하락과 관련 경제 문제들이 대다수의 원유수출국의 군사비 지출을 감소시켰다. 예를 들어, 사우디 아라비아는 2015-2016 년 군사비 지출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여 258 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 년 자국 내 원유수익 하락으로 군사비를 가장 많이 삭감한 국가는 베네수엘라(-56%), 남수단 (-54%), 아제르바이잔 (-36%), 이라크 (-36%)와 사우디 아라비아 (-30%)이다. 그 밖에, 앙골라, 에콰도르, 카자흐스탄, 멕시코, 오만과 페루 또한 눈에 띄는 군사비 지출 감소를 보였다. 2016 년, 큰 폭으로 군사비 지출 규모가 감소한 15 개 국가 중 2 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유수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알제리, 이란, 쿠웨이트, 노르웨이 등과 같은 몇몇 원유수출국은 유가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2016 년도 기존 군사비 지출 계획을 유지할 수 있었다.

기타 괄목할만한 변화

- 전세계 군사비 지출은 글로벌 GDP 의 2.2%를 차지했다. 국내총생산(GDP) 중 군사비 지출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중동지역(데이터가 있는 국가에 한해)으로 2016 GDP 대비 평균 6.0%인 반면, 아메리카 지역은 GDP 대비 평균 1.3%로 제일 낮았다.
-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비 지출은 11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 년 1.3%로 2 년 연속 감소하였다.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원유수출국들의 군사비 지출 삭감에 크게 기인한다(e.g. 앙골라와 남수단).
- 2016 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군사비 지출은 4.6% 상승했다. 지출 규모는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같은 지역 내 다양한 긴장상태에 기인한다.
-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및 남아메리카 지역 전체 군사비는 7.8%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7 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는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와 같은 원유수출국들의 군사비 지출 감소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브라질은 경제위기 악화로 인해 군사비 지출을 계속 줄이고 있다.
- SIPRI 는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몇몇 주요 군사비 지출국들의 데이터 부재로 중동지역 군사비 지출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는다. 데이터가 있는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우, 이란과 쿠웨이트는 상당한 군사비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이라크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상당 폭 감소하였다.

* 모든 백분율 수치 변화는 실질금액에 기반하여 표기함 (2015 년 고정가)

편집자들에게

SIPRI 는 전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을 감시하며, 가장 광범위하고 종합적이며 지속적인 군사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사비 지출내역으로는 현재 군사력 및 군사 활동에 쓰이는 모든 정부지출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급여 및 수당, 운영비, 무기 및 장비 구입비, 군사시설 건축비, 연구개발비, 중앙행정, 지휘 및 지원비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군사비 지출에서 무기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군사비 지출 언급 시 ‘무기구입비 (arms spending)’에 국한된 용어 사용을 삼가 바랍니다.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Press release
Embargo 24 April 2017, 00:01 AM CET**

Contact: Stephanie Blenckner
Communications Director
Tel: +46 8 655 97 47
Mobile: +46 70 86 55 360
Email: blenckner@sipri.org

기타 정보와 인터뷰 요청은 Stephanie Blenckner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lenckner@sipri.org, +46 8 655 97 47)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1966 년에 설립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분쟁, 무기, 무기 통제, 비무장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인 국제 연구소이다. 정책 입안자, 연구자, 미디어, 관련 대중 등에게 오픈 소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정책 제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싱크탱크로 손꼽힌다.

www.sipri.org